

백두대간 종주를 시작하면서



광전재료과 화공사무관 최월영

등 반 일 : 1월11일~12일 무박
제1구간 : 성삼재(1,070m)→만복대(1,433m)→정령치(1,172m)→주촌(500m)
종주길이 : 약 12km. 종주시간 : 약 5시간

날씨는 겨울답지 않게 맑고 포근하다.
1월11일 오후 8시 30분 집을 떠나 동대문역에 도착하니 오후 10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참석한 데 놀라며 서울고려관광 버스는 일행을 싣고 목적지인 지리산 성삼재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오늘은 백두대간 7차 종주대의 출발을 축하해 주기 위하여 1차에서 6차까지의 종주팀에서 구성된 각 회차의 회장, 총무 및 축하팀 등이 참석하여 2대의 버스로 출발한다는 이구 등반대장의 설명을 귀가에 스치며 잠시 눈을 감는다.

버스는 힘겹게 살얼음이 내려 앉은 뱀이 꼬리를 뒤틀고 있는 지리산 관통 도로를 올라 성삼재에 1월12일 새벽 4시에 도착, 졸리운 눈을 비비고 밖을 보니 별이 너무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고 생각보다 날씨가 포근하였다.

장비를 갖추고 앞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 만복대를 향하여 출발하였는데 10분을 못가 헤드랜턴이 고장나 비상용 핸드 후래쉬로 다른 사람보다 늦게 뒤따라가면서 장비 준비에 소홀한 점을 반성하며 겨울 산행 특히 야간 등반 준비에 철저히 하여야 되겠다고 다짐해 본다.

만복대에서 지리산 천황봉을 감싸고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앞으로 2년간의 월 2주차·4주차 백두대간 종주팀의 앞날이 평탄하기를 빌며, 나 자신도 종주 계획에 차질없이 참석할 수 있기를 빌어본다.

만복대의 눈바람은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인 데도 상상을 초월한다.

가만히 서 있기가 힘들 정도의 바람과 조금만 길을 벗어나면 허벅지까지 빠지는 눈발에서 일단 증명사진을 일단 찍고, 정령치 휴게소를 향하여 출발. 허허이게 웬 일이요 지금까지의 적설은 장난이었는데.

앞사람 발자국을 조금만 벗어나면 허벅지까지 빠지는 눈에 골짜기를 휘감는 구름, 불어오는 바람과 날리는 눈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행군을 계속하지만 정말 겨울산의 등반은 이런 것이구나 새삼

느껴본다.

경사가 없고 바람이 잦은 곳이 나오자 버스안에서의 짝지가 아침을 먹자고 하여 눈발위에 간이 밥상을 차리고 지나가는 일행들에게도 식사를 하고 가차고 서로 눈짓한다.

정말 눈이 내린 겨울산의 경치는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며 허겁지겁 허기진 배를 채우고 증명사진 2호를 찍고 정령치를 향하여 출발.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을 미끄러지고 기면서 중간 지점인 정령치에 도착하자 선발대는 느긋하게 아침을 먹고 있었다.

정령치 휴게소는 겨울 혹한기에는 폐쇄되어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가지고 간 물을 아껴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마지막 코스인 주촌을 향하여 발걸음을 재촉해본다.

사리봉까지 힘겨운 고개길을 올라가자 가파른 내리막길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뒤에 따라 오는 것으로 알고 있던 짝지가 없다.

주위에 아무도 없다. 정신없이 고개만 보고 올라오다 보니 짝지가 없어 진 줄도 몰랐다.

내려가서 만나기로 하고 혼자서 눈썹인 가파른 능선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주촌 삼거리 1.5km 한참을 가니 주촌 삼거리 1.0km 남았다는 표지판이 보인다. 500m가 왜 이렇게 먼가 하고 혼자서 종횡거리며 언덕을 내려가는 데 아찔싸 스틱 끝마디가 부러지면서 앞으로 5m 정도를 슬라이딩하고 나니 정신이 멍하다.

앞뒤를 둘러보아도 아무도 없다.

정신을 가다듬고 주촌 삼거리에 도착하니 일행도

없고 버스도 없다.

잠시 기다리다 옆에 있는 민박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버스가 도착하고 하산 팀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구 등반대장이 도착하고 백두대간 종주를 산신께 고하는 산신제를 지내고 서울로 출발. 제1회 백두대간 종주를 마무리하고 제2회에서 만나기를 바라며 작별을 고했다.

등반일 : 2003년 1월 25일~26일

제2구간 : 고기리(500m) → 여원재(470m) → 고남산(847m) → 사치재(500m)

종주길이 : 약 17km. 종주시간 : 9시간

1월25일은 11시에 동대문운동장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늦저녁을 먹고 1일차 종주대의 경험을 살려 보온도시락 2개에 밥과 된장국, 보온물통에 따뜻한 물 그리고 정상주까지 준비하여 눈이 내릴 것이라는 기상예보를 귀가에 담고 지하철에 오른다.

1월26일 새벽 4시 1일차 마지막 구간인 고기리에 도착하니 눈발이 간간히 날리고 있거나 그다지 춥지는 않았다.

이구대장의 1시간 취침 소리를 들으며 산행 시작전 잠은 산삼보다 좋다는 짝지의 넋두리를 자장가 삼아 눈을 감고 잠을 청한다.

나도 이젠 진짜 백두대간 매니아가 되어가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새벽 5시 불이 켜지고 밖을 나가 보니 눈발이 제법 굵어 졌다.

먼저 헤드랜턴의 상태부터 점검하고 새벽 눈을 맞

으며 여원재를 향하여 출발한다.

백두대간의 시작은 항상 무덤을 끼고 돈다. 무덤이 명당자리 라면서 항상 명당자리를 밟고 지나가는 우리는 복받을 것이라는 우스개 소리를 하며 앞사람 궁둥이만 쳐다보면서 아무런 생각없이 걸음을 재촉한다.

여원재에 도착해보니 먼저 온 팀들이 버스정류장안을 차지하고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고 등반이 곤란한 사람을 위하여 버스도 올라와 있었다.

눈은 이제 폭설이 변하여 눈보라를 일으키며 앞길을 가로막는다.

정류장안을 간신히 분양 받아 간단하게 아침밥을 먹고 막걸리가 있는 매요를 향하여 출발.

백두대간의 어려운 점은 끊어질 듯 이어 지는 길을 찾아 우리의 산책을 살펴보는 것이라는 가이드의 변을 깬가로 홀리며 혼자 찻석한 4명이 조를 짜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다.

한 친구 왠 눈이 오는 날 좋은 점은 입을 벌리고 있으면 눈이 입으로 들어와 목미를 새가 없다나.

산천수목 구경할 겨를도 없이 앞사람의 발자국을 따라 눈과 바람을 맞받아 싸우면서 고남산을 넘어 힘겹게 매요에 도착하니 매요의 휴게소 할머니가 마련해준 찌개에 막걸리 파티가 벌어져 눈길을 해쳐온 사람들의 허기를 채워준다.

백두대간 종주 중에 이런 날은 오늘 밖에 없다는 이구 대장의 녀살을 농담으로 생각하며 연거푸 3석잔을 들이키고 나니 이제 눈이 눈으로 보이고 사람이 눈사람(눈으로 뒤덮혀 검은색 등산복이 하얗게 변한 모습)으로 보인다.

매요 휴게소의 활미는 백두대간 종주꾼들을 위하여

항상 막걸리를 준비하고 계시 다나, 백두대간 종주중 취발유(식수 & 막걸리)를 보충할 수 있는 곳은 활미가 계시는 이곳뿐이라고 할머니는 녀두리를 하시면서 다시 끓인 찌개를 듬뿍 스테인레스 양재기에 담아 오신다.

이구 대장님이 그만 먹고 밥과 국이 있고 소주가 있는 사치재(오늘의 끝구간)로 향하여 출발할 것을 독촉하여 보지만 술꾼들 발걸음은 거북이 걸음이다.

막걸리 석잔에 풀려버린 다리를 이끌고 마지막 고개를 넘어 가려니 숨도 차고 온 몸이 피곤에 지쳐오는 순간

지금까지 그렇게 앞길을 막든 바람이 차고 눈을 함박 눈으로 변하면서 겨울산의 비경을 눈 앞에 펼쳐준다.

마지막 고비를 향하여 나아 가는 나그네에게 힘을 주는 눈썹의 비경 이런 맛이 겨울 동반이구나 생각하면서 마지막 힘을 내어 사치재에 신고를 하고 오늘의 마지막 구간인 지리산 휴게소에 도착한다.

오늘도 무사히 산행을 마치고 가슴 뭉뚱한 마음으로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는 이 맛을 계속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도 산을 찾아 갈 수 있기를 빌어본다.

덕분에 친구도 사귀고 산을 배우면서 삶을 다시 생각해 보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제2구간 종주 보고를 마칩니다.

제1차 종주 보고를 하면서 백두대간에 대해 나름대로 조사·정리한 자료를 함께 게재하여 우리 산책에 대해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